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31일(목)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 참석에 이어, 2년 연속 소상공인대회 참석 -
- '25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역대 최고인 5.9조 원 편성 -
-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추가 지원 -
-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고 판매(4.2조 원)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31, 목)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광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 (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규모로 판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도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